섬유용 발수제시장 침체

불소수지로 대체 추세 … 수요 10% 감소 520톤 불과

실리콘 에멀젼의 섬유용 발수제시장이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용 발수제의 국내 수요는 92년 기준 580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93년에는 10% 감소한 520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멀젼이 이렇게 섬유용 발수제 시장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 에멀젼은 섬유용 가운데에서도 면제품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면섬유는 전형적인 후진국산업으로 국내에서는 퇴조하고 있는 섬유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불소수지는 면제품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 나일론, 레이온, 등의 섬유에도 발수제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멀젼 발수제를 계속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용 발수제는 에폭시형과 하이드로겐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내에서는 80%이상을 하이드로겐형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섬유용 발수제 시장현황 (단위 : M/T, %, 년)

구 분	수 량	M/S	비 고
대 동 상 사	150	28.8	하이드로겐형
시 바 가 이 기	150	28.8	하이드로겐형
O S i	70	13.5	에폭시형
한국정밀화학	50	9.6	하이드로겐형
기 타	100	19.3	-
합 계	520	100.0	-

섬유용 발수제의 공급은 대동상사와 시바가이기가 연간 150톤씩을 공급하여 각각 28.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량 에폭시형을 공급하고 있는 OSi는 70톤으로 13.5%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정밀화학에서는 50톤으로 9.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가 100톤으로 19.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수요현황을 보면 방림방적에서 월간 8톤 가량을 소비하고 있으며 충남방적은 5톤 가량을 소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시바가이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중암염색은 월간 4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며 대한방적은 2톤, 기타 기업은 월간 1톤미만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섬유용 발수제 시장은 향후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와 공감대가 형성돼가면 하이드로겐형에서 에폭시형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미국에서는 현재 하이드로겐형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섬유용 발수제의 가격은 에폭시형이 KG당 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하이드로겐형은 33%가량 더 낮은 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섬유용 발수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는 KG당 8달러로 실리콘 에멀젼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11/8>